초년병 기자의 하루하루

손지혼/아리랑 TV 기자

TV 화면을 넘나들며 오늘도 뉴스 한 토막을 전하는 나의 이름과 모습은 더 이상 나에게는 낯설지가 않다.

아리랑 TV에 들어온 지 반년도 채 안된 보도팀의 초년생 기자. 어렸을 때의 꿈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외교관의 역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으로 나는 아직도 그 꿈을 간직한 채 뉴스가 있는 곳을 쫓아다닌다.

아리랑 TV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나라 유일의 영어 전문 해외방송 채널이다. 정부의 지원 하에 뉴스, 영화, 드라마, 쇼,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을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에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60여 개국에 무려 1250만 가구의 안방을 찾아가는 방송이 아리랑 TV이다.

내가 소속되있는 보도팀은 참으로 특별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주로 젊은층이며 절대다수가 여성들이다.

대개 해외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온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의 경우도 해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다.

선배, 동기, 후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리랑 TV의 보도팀만큼 국제 감각이 뛰어나고 특출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국제파가 이끌어 나가는 아리랑 뉴스는 미국의 유명 뉴스 전문 채널인 CNN 방송을 통해서도 전세계로 내보내진다. "World Report"라는 CNN의 프로그램에 내 기사가 나갈 때면, 지금 내가 매진하고 있는 일의 방향이 선명히 드러난다.

올림픽 경기와 같은 전세계적인 대회나 각종 국제회의, 심지어 미인대회에서도 각 나라별로 대표가 있듯이, 아리랑 TV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TV 방송이라는 자부심을 감히 가져본다.

우리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에겐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내가 얼마 전에는 웃지 못할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경험이 짧은 나는 매일 3시 정각에 2분 동안 진행되는 Arirang Newsroom Update의 원고 가운데 한 장을 빼어먹는 바람에, 2분 뉴스를 1분으로 단축시켜 끝내버려 혼쭐이 난 일이있다.

이렇듯 하루하루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보내면서 뜻밖의 힘든 고비들이 찾아올 때면, 한 선배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을 떠올리며 다시 활기를 되찾곤 한다.

그 선배님은, 방송이란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즐겨야 하는 것이며, 또한 누구나 다 중독되기 마련이라고 하셨다.

그렇다. 산너머 산처럼 느껴지는 힘든 방송 일이지만, 나는 이미 이 일에 점차 중독되어 가고 있을 만큼 매력을 느낀다.

전문 직업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수없이 많겠지만 나는 지금의 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자신을 계발해보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해 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명언을 되새기면서….